

기업·기관 협업으로 예술인 복지 증진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路)' 사업 본격 시작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1 전북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路)'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하고, 기업·기관(마을)의 협업을 기반으로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전국 광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써 재단은 2년 연속 선정됐다.

도내 예술인 40명(리더 8명, 참여예술인 32명)과 기업·기관 8곳을 선정해 각 기관별 리더 예술인 1명과 참여예술인 4명이 팀을 이뤄 홍보, 마케팅, 환경변화, 공간 창조 등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업이다.

참여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책방놀지, 전북예술문화원, 진북생활문화센터, (유)합해국, CGV 전주 효자점, (사)아이엠, 예술공간 결 등 총 8개 기관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용역'에 적용됨에 따라 매월 활동비 수령과 함께 예술인고용보험에도 가입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포함한 2개월 중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출산전후 급여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5월 26일 전라북도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1 전북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路)' 사업 선정 기관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재단은 지난 5월 26일 전라북도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선정 기관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예술로(路) 사업을 통해 전북예술인의 창의력을 발휘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민예술촌이 구)시청광장에서 '시민 모자이크 퍼포먼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군산시민예술촌 '시민 모자이크 퍼포먼스' 성료

체험부스·버스킹 공연 등 진행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이 구)시청광장에서 '시민 모자이크 퍼포먼스'를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민 모자이크 퍼포먼스'는 이종배 총괄감독 기획으로 400여명의 온라인 접수를 받아 대형 캔버스의 정해진 구역에 직접 색을 입히고, 10년 후 군산의 미래와 희망 및 개인이 소망하는 메시지를 적는 2주간 사전 참여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시민이 함께 완성한 작품 7점을 지난달 29일, 구)시청광장 무대에 설치해 모자이크처럼 나누어진 조각들이 모여 대형 그림이 완성됐다.

행사 진행으로는 내빈들의 간략한 소개와 시민들이 적은 희망·소망 메시지를 읽으

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어 팝핀현준과 이종배 총감독의 라이브 페인팅을 직접 관람하며 그래피티 예술의 섬세함과 화려함을 선보였으며, 시민들을 위해 예정에 없는 비보잉 댄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사우나래 무용춤, 박형주 탭댄스, 트리플제이 버스킹 공연으로 행사의 즐거움을 더하고 시민들을 위한 모자이크 체험부스도 마련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됐다.

군산시민예술촌 박양기 총장은 "처음 열리는 기획행사라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시민 모자이크 퍼포먼스를 위해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자이크 퍼포먼스가 군산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예술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영상창작실·소극장 등 갖춘 '순창문화창고' 개관 앞뒤

농협창고 새단장해 이달 말 개관

순창군이 농협 순화창고를 새단장해 만든 '순화문화창고'가 이달 말 개관한다. '순화문화창고'는 연면적 330㎡ 규모에 음악과 영상창작실, 소극장을 갖췄다. '순화문화창고'는 순창군이 지난해 1월 순창농협창고를 매입해 같은 해 6월에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용역까지 완료하고, 건물에 대한 안전성까지 확보해 9월부터 본격 조성에 들어갔다. 10개월간의 공사 끝에 이달 말 개관식을 앞둔 순창문화창고는 관내 청소년과 문화예술동호인의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에서 시작됐다.

기존 향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공간이 너무 넓거나 자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

편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소규모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그 결과 반경 500m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농협 순화창고가 낙점됐다. 대형히 '폐산업시설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전체 사업비 10억중 5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군의 재정적인 부담도 줄었다.

현재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외부 도색과 간판 작업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창고내에는 최근 트렌드로 자리잡은 1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영상창작실도 2곳이나 마련해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관내 청소년들의 꿈도 응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30평 규모의 객석을 마련할 수 있는 소극장도 조성해 지역 청소년과 문화예술인이 관객과 더욱 가깝

게 호흡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칠 수 있다.

문화창고의 내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도내 예술단체인 '문화포럼 나니네'가 2021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관내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판소리, 국악 댄스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친다.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은 "순화 문화창고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면서 "지역 청소년과 문화예술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고전소설박물관, 디카·詩 문학교실 개강

남원시는 남원고전소설박물관이 지난 5월 29일 '디카·詩 문학교실'을 개강했다고 전했다.

'디카·詩'는 디지털 카메라의 약자 '디카'와 '詩'를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로, 디카로 사진을 찍고 순간적 감흥을 시적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먹으로 그리고

詩한수를 여백에 넣는 문인화작업과 비슷하다.

양규창 화예연구사의 지도로 운영되는 문학교실은 직장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토요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장소관계로 분반 형식으로 10월 23일까지 무료 운영하며, 이번 과정

에서는 초청 작가와의 만남, 참가자 작품을 모은 디카·詩集 발간 등의 과정을 체험할 계획이다.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을 표현하는 디카·詩는 2004년 출현해 2016년 국립국어원에 디카·詩가 문학용어로 등재하게 되었으며, 현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리랑문학마을' 매력적 관광명소 육성 시동

김제시·한국관광공사, 현장 컨설팅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해 놓은 아리랑문학마을을 문학적 감성 여행지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박정용)는 6월 1일 아리랑문학마을에서 2021년 감소형 잠재 관광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날 현장 컨설팅은 아리랑문학마을을 비롯해 김제 주요 관광지인 금산사와 벽골제를 답사하고 컨설팅하는 일정으로 진행했으며, 전북도청 관광총괄과를 비롯해 전북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코레일전북본부 마케팅팀, 여행사 대표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아리랑문학마을의 관광지로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오디오 관광 안내 해설 앱인 '오디'의 진행 상황과 연계 여행상품 모니터링 등 보

완사항 및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관광공사 이선희 차장은 "아리랑문학마을은 방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원대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아리랑문학마을은 민족의 수난과 투쟁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단위의 관광명소로 거듭나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리랑문학마을'은 일제강점기의 시대상을 다루는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홍보관, 주채소, 면사 무소, 우체국, 정미소, 내촌·외리마을, 이민자 가옥, 하얼빈역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족의 수난과 투쟁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관광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